News & News

네트워크 수수료 등 조만간 정리
의료광고심의기준 개정 추진…현실 반영

의료광고심의기준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2007년 7월에 첫 제정된 의료광고심의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보건의료계 현실에 다소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어 정부와 보건의료계 단체는 개정을 통해 혼란한 의료광고 문화를 다소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광고 심의위원장들의 모임인 의료광고심의위원장 간담회가 조성욱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논의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기준 개정(안)과 관련 3개 의료단체가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율작업을 거쳤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3개 단체는 평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나눈 덕분에 이견이 발생되는 부분은 크게 없었으며, 조만간 최종 합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의 조율 후 개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3개 의료계 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정부와 어떤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관련 조항과 ▲의료광고가 아닌 것으로 분류 돼 있는 홍보물 또는 안내물을 의료광고로 분류 할 것 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전심의에 제외돼 있는 매체관련 규정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네트워크 관련 조항 중 가장 의견차가 큰 부분은 수수료에 대한 문제로 정부는 가입된 병의원의 지역명만 나열 했을 경우 광고 주체를 1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개 단체는 네트워크 수수료에 대해 현행과 같이 각각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네트워크는 의료법 상 의료광고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의 및 구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3개 단체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된 합의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의료광고심의위원장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규정도 3개 단체가 통합해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합의하고,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치협·문화일보 공동기획시리즈
치과변화 대국민 홍보 '성공작'

오는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치과 전문의원 시대가 개막하는 등 치과 진료시스템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말 치협이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치과가 진화한다'는 주제로 3회에 걸친 기획시리즈를 연재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리즈는 우선 '치과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사항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제도시행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 및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보안을 위한 대안으로 임상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치협이 운영중인 '통합치과전문임상 수련제도(AGD)'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했다.

끝으로 이수구 협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3회에 걸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 치과의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 건강보험제도에 바라는 점 등을 이 협회장의 발언을 통해 간결하게 정리했다.

이 협회장은 "치과의사들이 변화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면서 항상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어 등 역량을 키워 해외환자 진료에 나서야 하며 외국으로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계를 위한 사업으로는 임상위주의 교육시스템 개선, 임상교육 기회를 늘이기 위한 AGD과정 운영, 졸업시험의 실기중심 변화, 외국어 교육을 위한 원어 강의제도 등을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한국의 보험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고령화 되면서 재정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고 보장항목을 포플리즘적으로 계속 늘리면서 부담을 의료인에게만 저수가로 돌려 결국 비급여 항목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 의료비를 상승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OECD 수준으로 장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ews & News

AGD 경과조치 추가 기회 준다

9월 1일부터 2주간…사유서 제출

개인적인 사유로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경과조치 신청을 하지 못한 회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단, 신청이 늦어진데 대한 명확한 사유는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월 2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AGD 경과조치 지원서 추가접수의 건, 쌍벌제 도입관련 대응 TFT 구성의 건, MBC 불만제로를 통해 다시 불거진 치과 감염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안건들로 다뤄졌다.

우선 해외여행이나 제도시행에 대한 정보부족 등 개인적인 사유로 AGD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9월 초 추가 신청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구성된 AGD 수정보완 TFT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올해 치협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결한 대로 현 경과조치제도의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가로 AGD 경과조치 신청을 원하는 회원들은 곧 치협 홈페이지나 치의신보를 통해 공고될 추가 신청서 요구사항들을 마련해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치협은 최근 쌍벌제 시행으로 인해 각종 학술대회나 기자재전시회 개최 시 업체들로부터의 지원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치무, 법제, 자재, 정책, 보험 이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TFT를 즉각 구성, 업체 지원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각 단체들이 승인한 학회들은 쌍벌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와 정부의 의견을 확인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최근 MBC 불만제로를 통해 치과에서의 감염관리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현실에 맞는 감염관리 지침 및 요약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일회용 석션팁 등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절감 방안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기회에 감염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험적용범위 확충 등의 방안을 공론화 해 치과감염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알려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가 간단한 명칭사용의 필요에 의해 '대한턱관절교합학회'로 명칭 변경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승인키로 했으며, 대한구강보건학회의 영문명칭 중 Dental이라는 용어를 보다 정확한 의미를 가진 Oral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News & News

AGD 수정 보완 '스타트'

법인체 설립 등 의견 나눠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와 관련한 경과조치 수정·보완 TFT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AGD 현안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GD 경과조치 수정·보완 TFT는 7월 14일 서울역 그릴에서 첫 회의를 갖고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과 관련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TFT에서는 AGD 경과조치 지원서 추가 접수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AGD 법인체 설립, AGD 명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AGD 경과조치 지원서 추가 접수와 관련해서는 AGD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지원서 접수기간 등을 숙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친 회원에 대해서는 사유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추가지원 기회마련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TFT는 AGD 법인체 설립과 관련해서도 AGD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별도의 법인체 등 독립기구 형태를 통해 향후 예산을 포함한 AGD 교육 전반에 대해 발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이날 TFT는 AGD 명칭을 포함해 지방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필수교육 강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강연 횟수를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검토키로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T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이후 치협 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수구 협회장은 "졸업 후 임상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AGD제도는 전체 치과진료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치과계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TFT 위원들도 치과계 미래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치과계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신제원 치협 학술이사는 우리보다 앞서 AG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치의학교육평가원(CODA) 및 미국치협(ADA) 방문 결과와 미국 AGD 인정평가 워크숍 소개 등을 통해 미국의 체계화된 AGD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